

본 자료는 산자부 2005. 6. 17(금) 12시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보도자료 산업자원부 홍보관실	작성과	반도체전기과
		담당자	김영민 과장 김남정 서기관
		전화	2110-5683

大·中小기업 협력모델 기반의 2,800억원 규모 「수급기업투자펀드」 출범

- 수급 중소기업 전용 ABS 발행을 통해 8월부터 지원 개시-
 *대기업은 안정적 부품 수급처 확보, 중소기업은 R&D 및 설비투자 확대

- 산자부는 그간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기청과의 원활한 업무연계를 통해 자산유동화증권(ABS) 발행방식에 의하여 약 2,800억원 규모의 "수급기업투자펀드"를 조성한다고 발표함.
- 올해는 8월과 11월에 걸쳐 9개 업종의 수급기업을 중심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 100여 개사를 선정하여, 신용등급에 따라 20~50억원 규모로 무담보 지원 예정
 - * 9개 업종 : 반도체, 디스플레이, 기계, 자동차, 조선, 전자, 의료기기, 정밀화학, 전기기기
- 이번에 출범하는 수급기업투자펀드는 중기특위 확대회의('05.1) 및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대책('05.5)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,
 - 대·중소기업간 구매협력약정의 체결로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된 수급기업에 대해 설비 및 연구개발비를 지원하여 국산 부품·소재 산업의 육성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됨
 - * 수급기업투자펀드 : 대·중소기업간 구매협력약정(MOU) 체결로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수급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여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모델

□ 동 펀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후순위채 인수방식의 신용보강, 주간사 등의 중순위채 인수 및 시중은행 등의 선순위채 신용공여를 통한 안정적인 발행구조를 기반으로 직접 금융시장을 활용해 재원 조성

○ 산자부는 9개 업종별 협회내에 '사무국'을 설치, MOU 체결 지원 및 지방 순회설명회를 통해 업체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

* MOU 체결현황 : 반도체('04.9월), 자동차, 조선('05.5월) 협력약정 체결, 전자, 전기 등은 6월 예정

○ 중소기업청은 주간사 및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채권발행, 자금지원 업무를 담당(주간사 : 한양증권(8월), 신영증권(11월))

* 지난 5월 국내 증권사(14개)로부터 제안서를 접수·심사 하여 2개사를 주간사로 선정, 6월 20일부터 지원업체 모집을 통해 심사과정을 거쳐 8월경 자금지원

□ 이번에 발행되는 수급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자산유동화증권의 주요특징은,

① 반도체, 디스플레이, 기계 등 9개 주요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과 구매협력약정(MOU)을 체결한 성장유망한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

② 기술력과 금융을 연계시키는 기술금융지원 방식 도입으로 기술력평가 결과 우수등급 기업에 우대 금리 적용

③ 시장에서 소화 가능하도록 중순위채권 및 상장기업 신주인수권을 결합한 시장친화적인 메자닌 펀드(mezzanine fund)를 활용한 신용보강 구조 도입

④ 대상기업 선정과정에 창투사 등의 업체추천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크 풀링(pooling) 방식을 도입, 우수 중소기업 참여 유도

- 지원대상은 외부 신용평가회사가 정하는 기업신용등급 B-이상의 중소기업으로 대기업과 협력양해각서(MOU) 체결기업을 중심으로 지원
- 신용등급에 따른 지원한도(발행금리)는 BBB- 이상은 70억원(2.00~4.00%), BB+~BB- 50억원(4.97~8.47%), B+ 이하 40억원(6.47~9.97%)

<지원한도 및 발행금리>

신용등급	BBB- 이상	BB+ ~ BB-	B+이하
지원한도	70억원	50억원	40억원
발행금리	2.00~4.00%	4.97~8.47%	6.47~9.97%

- 발행구조는 선정 중소기업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(BW)를 주간사인 한양증권이 인수한 뒤
 - 이를 기초자산으로 선순위(발행물량의 63.33%), 중순위 I (16.67%), 중순위 II (2%), 후순위(18%)로 구분·발행
 - 선순위채권은 일반투자자에게, 중순위채권 I 은 KTB 자산운용(메자닌 펀드)에, 중순위 II는 지원대상 업체에 매각되며, 후순위채권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인수
- 지원자금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대상기업의 분식회계 여부, 대주주의 자금유용 등을 철저히 심사하여
 - 사업계획서상 용도 외 자금 사용업체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을 요구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지원업체의 도덕적 해이 예방

□ 이번 수급기업투자펀드를 통한 자금지원 효과는

○ 중소 부품·소재 업체 : 수요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안정된 시장 여건을 조성하여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이고, 시중의 유동자금을 투자자금으로 흡수하여 경쟁력 강화

- 특히, 은행대출 등의 방식으로는 대규모 투자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① 無담보방식으로 ② 大規模 자금을 ③ 상대적 低利 조건으로 ④ 다양한 금융방식(회사채 시장)으로 조달토록 지원

○ 수요 대기업 : 기술협력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협력업체를 육성함으로써, 장비·재료 구매선을 다양화하여 「경쟁력 있는」 조달이 가능하여, 장기적으로 부품·소재 관련 비용 절감 가능

○ 정부 및 국민경제 :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주력산업의 수입의존도를 낮추고, 중소기업과 대기업, 수출산업과 내수산업의 양극화 문제 완화에 기여

○ 수급기업투자펀드 방식을 통한 경우, 적은 정부예산을 지렛대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여 지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, 발전단계의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대규모 투자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

< 붙임1 >

수급기업 투자펀드 주요 추진경과

- '04.9.2 반도체·디스플레이 분야 6개 대기업과 32개 중소기업간 협력약정 체결
- '04.9.2 반도체, 디스플레이 분야 중심의 「수급기업투자펀드」 구상안을 중기특위에 보고
 - 소수업종 집중도가 높아 리스크 분산이 어렵고, 보증기관의 대규모 손실발생 및 WTO 보조금 금지협정 위반 소지의 문제제기
- '05.1.17 보완된 「수급기업투자펀드」 추진(안)을 중기특위 보고
 - 조선·자동차 등 여타 업종으로 확대하고, 중소기업의 리스크 공유 및 후순위채 인수방식으로 변경
- '05.3-4월 예산처, 중기청과의 협의를 통해 재원조달 방안 마련
 - 중산기금 중 「자산유동화사업」 항목으로 500억원을 전용·확보
- '05.5월 증진공은 12개 증권사의 제안서를 심사, 2개 주간사를 선정하고, 동 주간사와의 협상을 통해 '05년도 수급기업투자펀드 조성계획 마련
 - 주간사 : 한양증권(1차), 신영증권(2차)
- '05.6.20-8월 중순 지원대상 업체모집 및 선정
- '05.8월 말 1차 수급기업투자펀드 발행·지원(*05.11월 2차 지원)

< 붙임2 >

중소기업전용 자산유동화증권(ABS) 발행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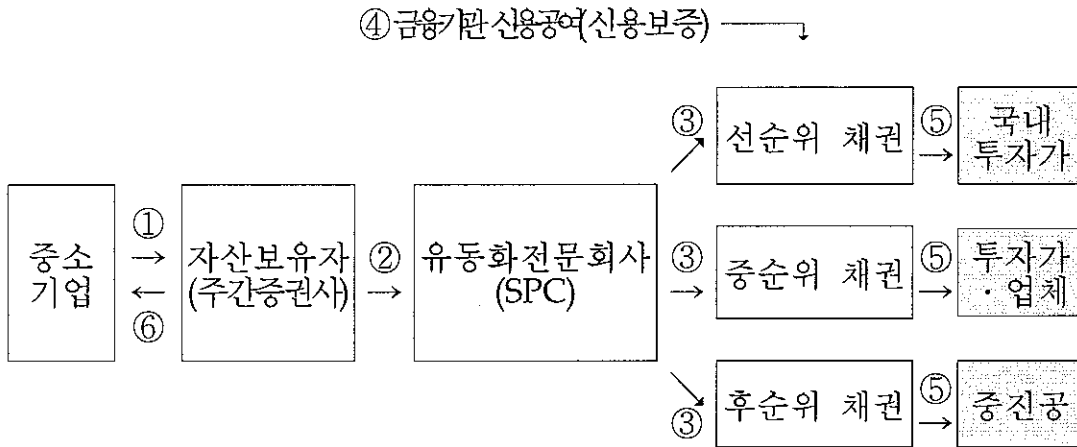
□ ABS의 개념

- 회사채, 대출채권, 부동산, 외상매출채권 등을 기초자산(Underlying Assets)으로 발행하는 파생금융상품(증권)의 일종
- ABS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CBO(회사채), CLO(대출채권), MBS(주택저당채권) 등으로 구분

□ ABS 발행절차

-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, 대출채권 등을 자산유동화 전문회사(SPC)가 인수한 후 이를 기초자산으로 ABS를 발행, 시장에서 매각하여 중소기업에게 자금조달 지원
 - 기초자산의 신용등급이 낮아서 이를 기초로 발행한 ABS를 금융시장에서 매각이 어려우므로
 - ① 잔존자산의 수익권한에 대한 우선순위에 따라 ABS를 선순위, 중순위, 후순위채권으로 구분 발행
 - ② 선순위채권은 다양한 신용보강을 통해 신용등급을 상향(AAA 등)시켜 채권시장 일반 투자자에게 매각하고, 중순위채권은 편입업체 및 시장에 매각하며, 후순위채권은 재정자금(중진공)으로 매입

○ ABS(중진공) 발행구조



< 세부 발행절차 >

- ① 중소기업 회사채, 대출채권 등을 주간사가 인수
- ② 주간사는 동 자산을 집합하여 SPC에 양도
- ③ SPC는 동 자산을 담보로 ABS(선순위채권+중·후순위채권) 발행
- ④ 선순위채권 금액(전액 또는 일부)에 대한 신용보강
 - * SPC에 대한 우량 금융기관의 신용공여
- ⑤ ABS(예시 신용등급 AAA)의 시장매각을 통한 자금조달
- ⑥ 업체별 자금지원